

‘장병e음 플랫폼·AI 기반 적 사격위치 탐지’ 시선집중

국방부, 정부혁신 박람회 출품 2건 호평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원스톱 서비스
적 총기 종류·탄종 정보도 실시간 제공

국방부가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원스톱 서비스와 국방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대표하는 사례 2건을 선보여 호평받았다.

국방부는 이달 3~5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여해 원스톱 서비스와 국방 AI 기술 적용을 대표하는 사례 2건을 전시하고 있다.

정부혁신 박람회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 AI 혁신 △AI 혁신기업 등 5개 분야별로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행복한 일상 분야 내 ‘장병 e음’ 플랫폼 △공공 AI 혁신 분야 내 ‘AI 기반 적 사격 위치 탐지 장비’를 출품·전시했다.

‘장병e음’은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모든 군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디지털 원스톱 플랫폼이다. 내년 1월부터 전 장병·예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통합 서비스 플랫폼 ‘장병e음’ 소개 부스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비역, 군무원, 군인가족 등 최대 700만 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휴가조회, 훈련신청, 교통예매, 복지시설 예약, 내일준비자금 가입 등 40여 개 서

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다음 달 32개 서비스로 시작해 7월까지 총 40개로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소프트웨어융합팀과 국방전산정보원 등이 개발을 주도했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줄이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행복한 일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AI 기반 적 사격위치 탐지 장비’는 실시간으로 적의 도발 위치를 알려주고, AI가 총성을 분류해 총기 종류와 탄종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군의 신속한 상황판단과 작전 대응을 지원한다.

야간·은폐 지역 등 기존 감시장비로는 탐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수한 탐지 성능을 보여주며, 24시간 무인 감시 능력을 제공한다. 육군교육사령부 AI기술소요과 주도로 개발돼 전방 감시초소(GP) 지역 등에서 시범 적용 중이다. 향후 군의 작전 능력과 효율성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욱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이번 박람회 출품은 장병의 편리한 일상과 작전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혁신의 결과”라며 “앞으로 국민의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고, AI를 적극 활용해 범정부 정부혁신 기조에 적극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노 기자

국회 국방위, 방산 중소기업 상생협력·핵추진 잠수함 개발 논의

성일종 위원장 등 관계자 간담회 개최
부승찬 의원은 한미 조선협력 세미나

K방산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및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핵잠) 개발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한기호·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 국방위원과 정책위원회가 ‘방산 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퍼스텍, 데크카본, 아이쓰리

시스템, 네스엔텍, 편진 등 방산 중소기업 14개사와 국방부,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가 참여해 방산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과 해결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성 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방산 상생은 불가능하다”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후 대기업까지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해 실제 협력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위 간사인 부승찬 의원도 이날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조선협력 추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문근식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를 좌장으로 3개 부문 기조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기조발제는 △한국형 핵잠 개발 추진 경과와 전망 △미국/오쿠스(AUKUS, 미·영·호 안보동맹) 잠수함 시장 분석 및 한미의 핵잠 건조 기술의 장단점 비교 △안보, 경제성 등 국의 관점 합리적 건조 방식을 주제로 이뤄졌다.

행사에서 정일식 한국기계연구원 국방

기술연구개발센터장은 한국형 핵잠 개발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핵연료 확보 등 한국형 핵잠 기술의 완성과 도약을 위한 동맹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 단국대 문주현 교수, 대한민국의잠수함연맹 윤정상 부회장이 참여해 최적의 핵잠 건조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을 이어 나갔다.

부 의원은 환영사에서 “핵잠 확보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우리나라 조선산업과 지역경제의 성장이라는 방향성도 중요하다”며 “국내 건조나, 해외 건조나 하는 이분법적 틀에서 탈피해 가장 합리적인 건조 방안을 찾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시연 기자

국방 법과학 발전 한뚝...민·군 전문가 한자리에

국방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세미나
수사·감정 분야 최신 동향·연구 등 공유

민·군 대표 수사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과학수사 기술을 공유하고, 국방 법과학 발전 방안과 협력 체계 강화를 논의했다.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는 4일 부대에서 ‘국방 법과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국방부와 각 군 수사관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경찰청, 대학 등의 수사·감정 분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전문가 초빙 강연으로 문을 열었

다.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의 ‘죽음의 과학적 이해’와 현명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의 ‘심리 부검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연구발표에서는 민·군의 수사·감정 기관 전문가가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은 △현장 감식 사례 △DNA·법유전학 분석 △화재·잔사물 분석 △필적·문서 감정 △중독 사망사례 등 여러 주제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중심 연구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법과학 기술의 최신 동향과 실무 적용 가능성도 공유했다. 아울러 국방 법과학 전문성 강화와 민·군 협력체계 확립에 대해 뜻을 모았다.

강필원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군 범죄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을 수행해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군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과학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R&D 과제 4건 본격 착수

국기연, 산·학·연 주관기관 선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지난해 공고한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R&D) 과제 4건의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최근 기술

협상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착수한 4건의 과제는 △소형위성용 위성통신 우주반도체 △초소형 전술급자이로 센서 △무인항공기 합성개구레이

다(SAR)용 반도체 칩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용 반도체 칩으로, 2029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기연은 “각 과제는 미래 첨단무기체계 성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고전력·고주파 특성이 우수한 화합물 반도체 기반의 국방반도체를 개발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화

합물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착수과제는 전문 역량을 보유한 반도체 중소기업과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 대학교, 수요 업체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돼 상호 동반성장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노 기자